[카드뉴스] 키워드로 본 금융IT Issue 6월 #2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2030이 내는 바람은 가히 태풍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MZ세대는 더 이상 참지만은 않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변화와 속도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며 풍랑을 넘기는 중이다. 산업에서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사업의 기회를 물색하고 있다.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일까?

메타버스, 게 섰거라! ❶

"가상현실은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
호라이즌 안에 일단 천만 명을 모으겠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2020. 10.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

3차원의 가상공간 '메타버스*'가 최근 전 산업으로 이슈화되는 가운데 **생태계 선점을 위한 빅테크 간 패권 다툼 치열.**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는 2019년 50조원이던 **메타버스 경제가 2025년에는 50조원, 2030년에는 17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메타버스(metaverse)** 1992년 출간한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처음 등장한 개념.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

세계 핀테크 기업 주요 M&A 사례

facebook	Tencent	Apple	Microsoft	Google
오큘러스VR(VR기기)/ 비트게임즈(VR게임)/ 스케이프테크놀로지(컴퓨터비전)/ 컨트롤랩스(신경인터페이스)/ 다운푸어인터랙티브(VR게임)	라이엇게임즈(리그오브레전드)/ 에픽게임즈(포트나이트)/ 스포트파이(음악)/스냅(소셜미디어)/ SNS, 플랫폼, 콘텐츠 등 1200여 개 기업 지분 인수	메타이오(AR소프트웨어)/ 페이스시프트(모션캡처)/ 이모션트(얼굴표정인식기술)/ 버바나(AR·VR기기)/ 아코니아홀로그래픽스(AR기기렌즈)/ 카메라이(AR소프트웨어)/ 넥스트VR(VR콘텐츠)	모장(게임 마인크래프트)/ 알트스페이스VR(VR플랫폼)/ 제니맥스미디어(VR게임)	퀘스트비주얼(AR소프트웨어)/ 아이플루언스(VR기기)/ 아울캐미랩스(VR게임)/ 노스(스마트글라스)

✔ 이슈 분석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 지난 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가상융합기술(XR) 수요·공급기업과 이동통신사, 방송·미디어사 등 관련 산업 기업들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얼라이언스 출범.
-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N, 롯데월드 등 ICT 기업 참여.
- 최근 정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메타버스 TF 구성, 정책적으로 산업을 지원할 부분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정부까지 구현한다는 계획.

메타버스, 게 섰거라! ❷

메타버스의 한 축은 플랫폼 사업으로 많은 사람이 장시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플랫폼 내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분출. 특히 **금융권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재화(가상화폐)에 주목**하고 먹거리 창출에 분주. 최근 메타버스 열풍을 대표하는 **'로블록스'는 가상화폐 '로벅스'로 게임 내 경제 활동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상업화 안착.** 그밖에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도 가상화폐 '마인코인'을 통용**하고 있으며, 7월 중 오픈할 **싸이월드도 가상화폐 '도토리'**를 내세우며 사업 확장 계획.

국내 금융업 메타버스 시장 준비 현황

- 신한카드 ▶ 'Z세대/메타버스와 금융' 공동 프로젝트 체결(<메타버스> 저자 김상균 교수와 연구 추진)
- KB자산운용 ▶ 업계 최초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메타버스 대표종목 펀드 출시
- Danal ▶ 재테크 라이프 지향하는 커뮤니티 그라운드 '제프 월드' 연내 론칭 계획 발표
- kakao 손해보험 ▶ 플랫폼 연계 보험, 플랫폼 통한 보상 청구 등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상품 출시

돋보기 메타버스 시대, 가상자산 또 다른 가능성?

메타버스가 디지털 금융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권에서 패러다임 변화 대응 중

- DBG금융지주: 비대면 채널확산에 맞춰 네이버Z '제페토'에서 가상회의 진행
- 캐나다 TD은행: VIP 고객과 증강현실 상담 시작
- 미국 캐피털원: AR 기반의 자동차 대출 앱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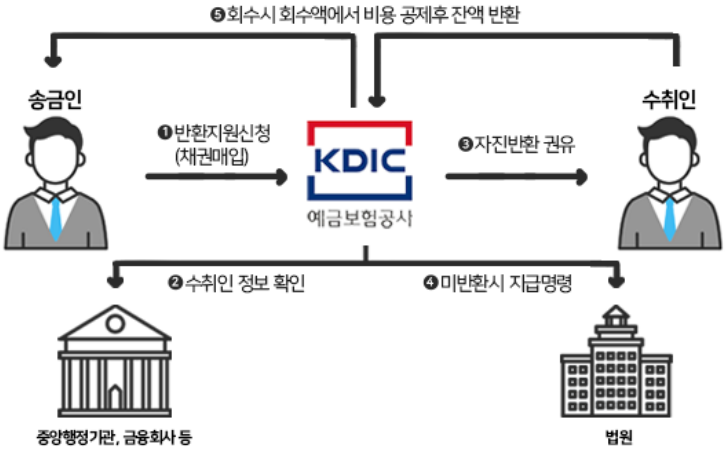
앗 실수로 송금했어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세요!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 송금도 증가 추세.**
지난해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10만여 건이 미반환**된 것으로 분석.
7월 6일부터 5만 원~천만 원 범위의 착오송금분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줄 예정.

예금보험공사 통한 착오송금 반환신청 자료: 금융위원회

착오송금한 송금인: 반환지원신청(채권매입) › 예금보험공사: 수취인 정보 확인(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 ›
수취인: 자진반환 권유 › 예금보험공사: 수취인에게 미반환 시 지급명령(법원) ›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우편 안내·인지대·인건비 등) 공제 후 잔액 반환

*은행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포함(예외 있음)
*현재 예보 홈페이지 내 사이트에서만 접속 가능(모바일 앱 내년 출시)



착오송금 반환 신청시 주의할 점!!

1 실제 명의 확인 필수!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가령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한 경우는 신청 불가.

2 반환 신청 대상만 적용!



1.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2.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제외. 또한 3.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거나 4.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마지막으로 5.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 대상이 아님에 주의.

3 회수액과 수령 시기 확인 필수!



회수액은 비용 공제 후 반환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회수액 중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천원(지급명령)~8만6천원(자진반환)이며, 100만 원의 경우 91만 원~95만 원, 1천만 원은 920만 원~960만 원이 지급 예상 금액임. 착오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MZ세대, 취향 저격하는 MTS는 못참지

증권사들이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를 공략**하는
고객맞춤형·간편성·편의성 등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

NH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
업계 최초로 최신 UI·UX 스위처
(방문한 페이지 확인) 기능도 도입.

신한금융투자

지난 4월 MTS 신한알파를
선보이고, 업계 최초로 AI 기반의
고객별 맞춤 상담은 물론 손쉬운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출시.

KB증권

6월 15일 주식 초보자와
기존 주식 투자자까지 만족시키는
MTS를 출시.

키움증권

하반기 차세대
MTS 서비스 출시 예정.



MZ세대 특징

실용성을 중시하고 복잡한 것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별해 제안해 주는 것을 선호. 변화와 속도에 익숙.

토스뱅크, Who's the Next?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뱅크)으로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으면서 벌써 **네 번째 주인공**에 관심이 집중. 예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생길 때만 해도 워낙 큰 규모의 차이로 **크게 긴장하지 않던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크의 빠른 시장 잠식 속도에 긴장된 분위기.**

인터넷뱅크 현황 *여신·수신 잔액 및 이용자 수 (올해 5월말 기준)

은행명	출범일	여신 잔액	수신 잔액	이용자 수
K bank	2017년 4월	4조 7400억 원	12조 9600억 원	605만 명
kakaobank	2017년 7월	22조 7203억 원	26조 690억 원	1653만 명
toss bank	2021년 3분기(예정)			

이들 은행이 **2030 젊은층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시장을 공략**하면서 기존 은행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토스뱅크의 출현은 인터넷은행이 미래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 이에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 설립**이나 **인수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고심.

한편, **금융위는 네번째 인터넷뱅크와 금융지주사의 진출 허용 등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토스뱅크 설립 이후 **정책적인 판단**할 것임을 밝혀.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